

경제

퇴직 영상제작전문가들, IT기술 입고 스마트영상작가로 부활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영상의 결합, 사업의뢰도 속속 들어와



“살아온 길 자체가 한 편의 영화와 같다”

11/27 부동산 따라잡기 II

[백브리핑] KEB하나금융 뉴스테이 전략... '도심 공략하라'

고객기부금 공제혜택 더 준다... 세액공제율 25%→30%

국내1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29일 발표

이광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 ‘꿈’에서의 인연으로 남편이 된 신상옥 감독과의 만남, 그리고 북한으로 납치와 탈출...

최은희 씨의 극적인 인생을 영화배우가 아니라 이모로 지켜보던 조카 홍유표 씨는 그녀가 담담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육성 인터뷰를 이처럼 영상에 담아 냈다.

11월25일 오전 서울 녹번동 크리에이티브랩 다목적홀에서는 의미 있는 스마트영상작가 1기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수료식이 개최됐다. 주인공들은 퇴직 영상제작 전문가들을 포함해 사회에서 한 번씩은 은퇴식을 거쳤던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최은희 씨 육성 인터뷰를 영상에 담은 KBS 기자 출신인 홍유표 씨가 팀장으로 있는 5조가 받았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김흥겸씨는 KBS엔지니어 출신으로 최근 드론까지 사서 촬영에 나서며 인생이모작을 사회봉사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개인 부문 우수상은 KBS PD출신 김상기씨로 감각적인 영상들을 만들어내면서 얼마전 스튜디오를 오픈했다.

개인 부문 장려상에는 현재 MBC 촬영감독으로 퇴직을 얼마 안 남긴 안진영 씨와 그리고 방송작가 출신으로 탄탄한 구성력과 감각있는 영상을 선보인 서정옥 작가가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다.

30여 년간을 영상제작 한 분야에서 매진해오던 그들은 퇴직 후 각자의 인생 후반전을 꿈꿨다.

이왕이면 자신의 전문분야를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사회적 봉사도 하고, 용돈벌이도 할 수 있는 보람적인 일을 찾아서... 그러나 아날로그 감성이 풍부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IT기술. 그들이 실무진에서 활동했을 때와는 달라진 영상제작 기술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방송전문가의 반열에서 밀어내고 있었다.

이때 그들에게 “제1기 스마트영상작가 양성과정 모집”이라는 희망적인 빛줄기가 보였다. 이제 그들은 “스마트영상작가”란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스마트영상작가’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가족, 단체, 기업의 역사를 디지털 영상으로 기록하는 직업’이다.

(사)50플러스코리아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방송, 영화, 광고, 홍보 등 영상 관련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IT기술 습득과 이를 취업으로 연계하는 ‘스마트영상작가 양성사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직업이다.

이 공익사업은 지난 6월말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래형 신직업군 양성사업’ 공모 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영상 전문가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영상자서전, 가족사, 기업사, 인물향토사 등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신직업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약 석 달 동안 하루 6시간씩 강행군을 이겨냈다.

80%의 출석률과 개인작품, 팀별작품 제출이 수료조건이라 만만치 않았다. 커리큘럼은 수강생 개인이 갖고 있는

노트북과 스마트폰, 교육장의 전문편집SW 등을 활용한 실습, 다큐멘터리 기획, 취재, 구성, 촬영, 인터뷰 등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강사진으로는 삶의 무게가 실린 중후한 전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방송사 인간극장 제작자, 현재 대학에서 출강중인 카메라, 비선형 편집(NLE), IT, 파워블로그 제작전문가, 전직 아나운서 등이 출강하여 호평을 받았다.

특히 칠순이 넘은 나이에 직접 촬영, 연출 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효시, 살아있는 전설’ 정수웅 감독의 특강은 현업에서 겪어 보지 못한 생생한 경험담으로 수강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수료생들의 면면 역시 만만치 않았다.

전직 드라마 작가를 비롯하여 영상제작 분야에서 전직 국장급 출신 프로듀서, 기자, 카메라, 전산, 경영전문가, 광고, 홍보 관련 CEO들 등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았기에 매 강의마다 생생한 자신들의 경험담으로 강사의 수업을 보충해줄 수 있어서 강의 열기는 항상 뜨거웠다.

30명 모집에 최종 수료자는 27명.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실제 사업 의뢰가 속속 들어왔다.

사회적 기업의 홍보영상, 문화협회의 홍보영상 등등 거대한 프로덕션을 이용하기엔 경제적 여유가 없지만 나름 영상작업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는 많았다. 실제 의뢰 들어온 영상작품으로 졸업작품을 대체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사 등 이미 취업한 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스마트영상작가 수료생들은 본격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창작협동조합 결성을 준비 중이다.

과거의 사진은 물론, 아날로그 VHS 테이프나 8mm, 6mm 캠코더로 찍은 동영상을 디지털로 변화하여 주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영상자서전 등을 제작하여 준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퇴직자들에게 재미있고 보람된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열리게 된 것이다.

스마트영상작가 개개인들에겐 새 직업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 본 사업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초들의 삶을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로 보존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미시사(微視史)’를 복원하여 ‘대한민국 100년사’를 완결시키고자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영상작가 1기 회장인 이채원씨는 이번 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취지에 맞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심화과정과 정보화 시대에서 각자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장도 다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50플러스코리아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방송, 영화, 광고, 홍보 등 영상 관련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IT기술 습득과 이를 취업으로 연계하는 스마트영상작가 2기를 모집한다

커리큘럼은 수강생 개인이 갖고 있는 노트북과 스마트폰, 교육장의 전문편집SW 등을 활용한 실습, 다큐멘터리 기획, 취재, 구성, 촬영, 인터뷰 등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지며, 수료생들은 취업, 협동조합 결성, 개인 창업 등을 통해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다.

< 제2기 스마트영상작가 양성과정 모집 공고 >

교육기간: 2015. 12. 8 ~ 2016. 2. 18

교육시간: 매주 화, 목 09:30~17:00(1일 6시간), 10주, 총 124시간 예정

교육장소: (사)50플러스코리아 강의실(지하철 교대역 4번 출구에서 200m)

(홈페이지 약도 참조 www.50pluskorean.or.kr)

수강대상: 방송, 영화, 광고, 홍보 등 영상 관련 퇴직(예정)자

수강정원: 30명

선발방법: 서류(신청서) 심사 후 개별연락(필요 시 면접심사)

접수기간: 2015. 11. 10 ~ 2015. 11. 28


접수방법: (사)50플러스코리아 홈페이지(www.50pluskorean.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서

이메일(50pluskorean@naver.com) 접수


최종편집 : 2015-11-27 12:42

SBS CNBC 인기 기사

'이혼' 정찬, 다정하게 사진찍은 미모의 20대녀 알고보니
개그우먼 정선희 맞아? 다이어트 제대로 성공
추신수 아내 하원미 옷차림이 너무 야해!
김영삼 영결식, 박근혜 대통령 불참한 이유가...
문주홍 연구원 추천종목 '에임하이' 4일 연속 상한가
말기 암투병 38세 "女", 죽기 직전에 한말이..
"경제 전문가" 엄길청 박사의 3억 원대로 건물을...



SBS CNBC **주식 전문 연구원**과 함께하는 **무료 공개방송**
무료 종목 진단! 연구원 추천 종목으로 돈 버는 주식 투자! **매일 무료방송 OPEN!**



저작권자 SBS 비즈니스 네트워크 & SBS 콘텐츠허브 무단복제 재배포금지

[인쇄하기](#)

[목록](#)

[위로](#)